

“올해 신제품 4억대에 AI 적용 ‘AI 일상 동반자’ 시대 본격화”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간담회

AI기반 혁신지속 등 3대전략 제시
프리미엄 TV에 ‘맞춤형 AI스크린’
“경험 최적화 AI 종합 IT기업 지향”

“삼성전자는 연간 4억 대에 달하는 모든 기기를 하나로 연결해 고객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AI 일상 동반자’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은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AI 기술을 통해 고객의 일상을 혁신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AI 일상 동반자’ 시대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 대표는 DX부문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AI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AI 기반 혁신 지속 ▲기술 혁신을 통한 코어 경쟁력 강화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 강화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모바일, TV, 가전 등 전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전면 적용해 고객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노 대표는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 4K 이상 프리미엄 TV,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가전에 AI를 탑재할 것”이라며 “올해 AI가 적용된 신제품 총 4억 대를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에서 열린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은 다양한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허브’로 진화하며, TV는 모든 프리미엄 라인업에 ‘비전 AI’를 적용해 ‘맞춤형 AI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가전은 가사 부담을 ‘제로(Zero)화’하고 수면·건강 등 고객의 일상까지 관리하는 ‘홈 AI 컴패니언’으로 거듭난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개별 기기의 기능을 넘어, 고객이 끊임 없는 삼성전자만의 ‘종합적인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바일·TV·가전 등 코어 비즈니스의 기술 혁신에도 집중한다.

모바일은 ▲모바일 경험 ▲성능 경쟁력 ▲카메라 고도화 ▲사용 시간 개선 등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가전 부문 역시 품질과 신뢰성을 혁신하고 로컬 시장 니즈를 반영한 라인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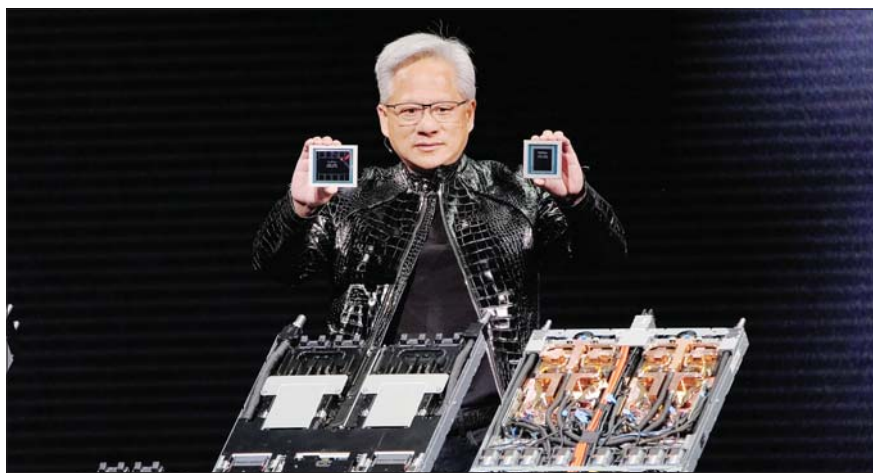
특히 TV 부문은 라인업을 전면 재편한다. 최상위 라인인 마이크로 RGB·마이크로 LED부터 Neo QLED, OLED, 그리고 보급형인 Mini LED와 UHD까지 촘촘한 라인업을 구축해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고 ‘글로벌 1위’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노 대표는 “삼성전자는 모든 카테고리, 모든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AI로 연결해 고객의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는 AI 종합 IT 기업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는 더욱 강화한다. 노 대표는 ‘4대 신성장 동력’인 ▲공조 ▲전장 ▲메디컬 테크놀로지 ▲로봇이 미래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표는 “삼성전자는 AI 혁신을 통해 고객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겠다”며 “AI로 연결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삼성만의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폰텐블로 호텔에서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열린 엔비디아 라이브에서 차세대 그래픽 처리장치 루빈 GPU와 중앙처리장치 베라 CPU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뉴시스

“벤츠와 합작 자율주행차 올해 1분기 미국 달린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자율차 두뇌 ‘알파마요 스택’ 공개
신형 ‘벤츠 CLA’에 탑재·출시
2분기 유럽, 하반기 아시아 첫 선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벤츠와 손잡고 자율주행 영역에서 처음으로 자체 구축한 자율주행 스택을 양산 차량에 적용한다. 엔비디아가 만든 자율주행차는 당장 올해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술 완성도와 신뢰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폰텐블로 호텔에서 블로라이브 극장에서 개최한 ‘CES 2026’ 특별연설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 스택’을 공개했다.

알파마요는 엔비디아가 만든 차세대 자율주행 AI 모델이다. 카메라·센서의 입력을 받아 사람처럼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운전 결정을 내린다. 즉 AI가 직접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두뇌’ 역할을 한다.

황 CEO는 “알파마요는 카메라 입력부터 구동 출력까지 문자 그대로 엔드 투 엔드로 학습됐다”며 “카메라 데이터, 수많은 자율 주행 및 인간 주행 데이터, 코스모스가 생성한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사용했고, 여기에 수십만 개의 사례를 정밀하게 쌓아 자동차에게 운전법을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은 우선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CLA에 탑재된다. 미국은 올해 1분기, 유럽은 2분기, 아시아에서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엔비디아가 직접 구축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실제 양산 차량에 적용돼 도로로 달리는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황 CEO는 알파마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공개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접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으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황 CEO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본격 양산 돌입 사실도 공개했다. 베라 루빈은 현재의 블랙웰 시리즈 중 최상위급 제품인 ‘블랙웰 울트라’보다 추론 능력은 5배, 학습 능력은 3.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은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루빈에 탑재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 메모리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물량 공급을 위한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카드론·저축은행 소액대출 다시 급증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9곳
카드론 잔액 42조, 전월비 1.14% ↑

중저신용자 고금리대출 의존 상승
금융권 전체 대출규모는 감소세

카드론과 저축은행 소액대출 잔액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규제에도 제2금융권에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급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사 월별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카드사 9곳(롯데·비씨·삼성· 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5529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42조5453억원) 대비로는 약 0.02% 증가에 그쳤으나, 직전 달(42조751억원)과 비교하면 약 1.14% 늘었다. 특히, 전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24년 10월(1.28%)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카드론은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정부가 6·27 대책 일환으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카드론을 포함시키면서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묶이면서 카드론 잔액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9월까지 4개월간 줄어 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증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급전 수요가 늘면서 2금융권의 소액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에 대출 관련 문구가 걸려 있다. /뉴시스

가세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9월 41조8375억원→10월 42조751억원→11월 42조5529억원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카드론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두고 급전을 찾는 중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9월 주요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47~14.83% 수준에 형성됐다. 이후 10월에는 13.45~16.01%로 금리 상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잔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대출 절차도 간단하고, 담보도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급하게 대출을 당겨쓰기 쉽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론 대출 증가에 대해 “급전

수요는 기본적으로 지속돼 왔다”면서 “카드사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카드론 대출 수요가 받아들여진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소액신용대출 금액이 증가하면서 급전을 찾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 소액대출총액은 1조320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말 1조2146억원에서 6월말 1조2880억원, 9월말 1조3204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대출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총대출액은 96조4906억원에서 93조3693억원까지 줄어 들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아틀라스, 56개 관절 자유도·촉감센서 갖춰

》1면 ‘현대차그룹, 로보틱스’서 계속

현대차그룹은 로봇 계열사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이번 CES에서 피지컬 AI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과 개발형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56개의 관절 자유도와 촉감 센서를 갖춰 사람과 유사한 정밀 동작이 가능해 실제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이다. 360도 카메라로 주변 모든 방향을 감지하는데 다 최대 50kg의 하중을 견디고 2.3m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영하 20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의 폭염에서도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배터리가 소모되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교체하고 작업을 재개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을 대량 생산해 제조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AI 로봇을 훈련시킬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연내 미국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포함한 생산 거점에 개발형 모델을 투입하고 공정 단위별 검증을 거쳐 도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28년부터 HMGMA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우선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위를 확장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류 발전을 위해 인간과 로봇이 진정한 협력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기업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